

사설

중진스님 연수에 부처

조계종교육원이 법랍 2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제1회 고급 지도자과정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법랍 25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는 중진 지도자과정 연수교육을 경기도 화성 신홍사에서 실시한다.

조계종은 승려의 자질 향상과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1981년 단일계단 시행, 1991년 행자교육원 개원, 2000년 7월 승가고시위원회 발족으로 5급(사미·사미니), 4급(비구·비구니) 승가고시를 시행하고, 2001년 10월 법랍 10년 차 스님들을 대상으로 제1회 3급 승가고시시험을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스님들의 위상 정립과 중진발전에 대한 대안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 동안 교육원에서 분발사 주지 연수와 각종 교역직 중무원 및 교계단체

관리자들을 위한 특강교육을 통하여 사찰관리와 포교, 문화재 보존관리 등 사찰운영과 신도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특히 이번 교육은 불교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자세' 특강을 시작으로 한국 종교의 특징과 동향, 불교 지도자론, 환경 및 생태활동, 경영혁신 등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해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현실인식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랍 20년, 30년 된 중진 스님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를 이끌어 갈 현실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불자는 물론 국민들도 한층 신뢰할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번 연수가 중진발전과 더불어 한국 불교의 토대를 다지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스님들도 초심으로 돌아가지 진지하게 동참하길 기대한다.

내실있는 여름수련회 돼야

여러 사찰에서 여름 수련회 참가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조계종 포교원은 '사찰수련회 정보센터'를 열어 관심있는 이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수련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여름, 수행 열기가 전국 사찰들에 넘쳐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전통적인 수련회뿐만 아니라 자연캠핑, 영상캠핑 등 일반인들이 손쉽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들을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는 다양한 캠프들도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또 긍정적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특성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찰의 전통적인 수행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여러 방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중진에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교육자를 양성하여 주요 사찰에서 상설로 수행 프로그램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주5일 근무제를 겨냥한 상설 주말수련회와 가족수련회가 잇따라 준비되고 있는 것은 포교 활성화를 위한 고무적인 일로 기대가 크다.

문화와 환경 자연 등을 주제로 한 캠프들은 아직은 주제와 불교가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좀더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주제와 불교를 완전히 융화시켜, 재미있으면서도 내실 있는 캠프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하루아침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주 5일제 근무에 부응하여 주말에 수련회와 캠프들이 상설되고, 그것이 여름과 겨울의 장기적인 수련회로 집약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만, 경험과 성과가 축적되어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조계종, 사관학교등 37개 교육부대 집중지원

1사찰 1군법당 결연 추진

교구본사별로 군승요원 추천받아

'군 교육부대에서의 한번의 종교 선택이 26개월간의 종교활동을 좌우한다.'

조계종이 각군 사관학교와 종합행정학교 등 주요 교육부대, 사단신병교육대 등 37개 군교육기관 부대 군법당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12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전국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군포교 진흥의 해'를 맞아 24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37개 교육기관 부대에 대한 집중지원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포교부장 상은스님은 "군 내에는 다양한 규모의 390여개 군법당이 있지만, 각급 교육부대에는 유동인원이 많고, 입대 후 처음 종교활동을 선택하는 곳이란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37개 군법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7월까지 해당 지역 군법당을 중점관리할 교구본사를 선정하고 각 본사별로 '1사찰-1군법당'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 군법당 수계법회사업 및 예산지원, 일·수요일 정기법회 지원, 군법당 운영예산 지원 등

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포교원은 또한 스님 가운데서 군승요원을 선발하는 것이 군포교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교구본사별로 군승요원 추천을 받기로 했다. 또 법사단 해소를 위해 스님들이 군부대 지도법사로 활동하는 '상임포교사 제도'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각 교구본사에 요청했다.

조계종이 중진차원이 아닌, 교구본사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월부터 본격적으로 군내 신도등록 사업을 추진, 군 신도관리 체계화에 나서실 방침이어서 군포교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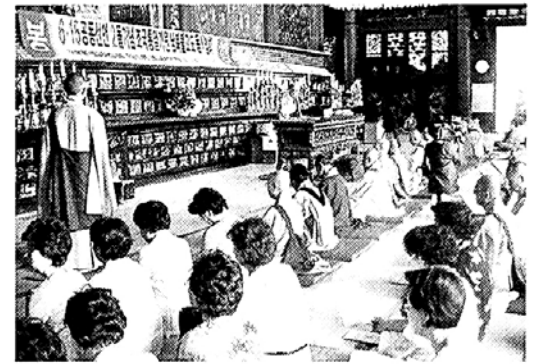
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6·15선언 2돌기념 조계·보현사서

6.15공동선언 2돌 기념 조계 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가 14일 남한 조계사와 북한 보현사에서 개최됐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남북공동법회는 중단협 회장 정대스님의 법어,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의 인사말, 남북공동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남북공동법회 개최는 지난 4월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단의 평양 방문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과 6·15공동선언 2돌을 맞이하여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의 불교도들의 뜻을 모아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원우 기자



14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남북동시법회 모습.

6·15 남북동시법회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 남북의 불자들은 조국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통일로 힘치게 나아가려는 우리들의 앞길에 언제나 무량한 가호를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남북의 불자들은 조국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통일로 힘치게 나아가려는 우리들의 앞길에 언제나 무량한 가호를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범등명으로 삼고 꾸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불기 2546년 6월 14일 '6.15공동선언발표 2돌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동시법회' 참가 사부대중 일동

워크숍은 '리더십 특강'을 비롯 한 네 차례 강의와 '교사연수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불교대학 대표자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20일 오후 12시30분 총무원 불

교대학에서 불교대학 대표자(학장) 회의 및 신도전문교육 고별식을 개최한다. 이번 고별식은 43개 신도전문교육기관에서 고별자 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로 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본·말사 주지 연수교육 실시

권역별로 여섯차례

7월11~12일 서울·경기·강원권 사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권역별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2002년도 조계종 본·말사 주지 연수교육이 실시된다.

올해 본·말사 주지 연수교육은 '신도조직화와 활성화 방안' 불

교문화재 관리와 국고보조금 운용' '불교 환경활동의 현황과 생태사찰 가꾸기'를 주제로 실시되는 것이 특징. 이는 주지스님 마인드 제고에 초점을 두었던 예년과는 달리 중단 정책 이해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단 및 사찰 운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llustration titled '현대' 만평 (Modern Satire) by Kim Myeong-min. It depicts a monk and a nun sitting at a table with a large bell labeled '자매결연 포교' (Sisterhood Partnership Po-gyo). The monk is holding a scroll labeled '교구본사' (Diocese Head Office). The caption below reads '군법당을 부속 암자로...' (Military law halls as annexes to nunneries...).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

지역별 연수 일정을 보면 직할교구·용주사·신홍사·월정사·봉선사 등 서울·경기·강원권은 7.11~12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법주사·마곡사·수덕사 등 대전·충청권은 9.4~5일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금산사·백양사·송광사 등 광주·호남권은 구례 송원연수원에서 열린다. 해인사·쌍계사 등 부산·경남권은 9.17~18일 산청 삼성연수소에서, 직지사·동화사 등 대구·경북권은 9.26~27일 동화사에서, 제주권(관음사)은 10.1~2일 관음사 포교당에서 연수교육이 각각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어린이집 관리자 워크숍

진각종, 21~22일 통리원서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은 6월 21, 22일 양일간 '불교와 21세기 리더십'을 주제로 통리원에서 중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한다.

23개 중립 유치원과 진각복지재단 산하 10개 어린이집 관리자 30여명이 참가하게 되는 이번 워크숍은 불교교육 중간관리자 양성 및 다양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Modern Buddhism and the Revival of the Worl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editorial team and subscription rates. Website: www.buddhanews.com

Advertisement for Poongsan Han-shik-dong-gi. Features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house and text stating a price reduction from 540,000 to 420,000 KRW per un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 and a list of services.